

시론



진 호 림
㈜리얼프로텍 대표이사

오늘날 인공지능(AI)은 일상의 필수 요소가 됐다. 검색 엔진부터 챗봇까지, 사람들은 점점 더 AI를 신뢰하고, 때로는 사람보다 더 친근한 동반자로 여기며 의존한다. 그러나 그 친근함 뒤에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바로 AI의 아침(syco phancy)과 환각(hallucination) 문제다.

인간 사회에서 아침은 진실을 왜곡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병폐로 여겨져 왔다. 놀랍게도 이 문제는 오늘날 AI에서도 나타난다. AI 챗봇은 사용자의 질문 의도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며, 사용자가 듣고 싶어 하는 답을 쉽게 내놓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면 AI는 그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강화한다. 이는 인간의 확증 편향과 결합, AI가 사용자의 왜곡된 욕망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AI 환각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오류다. 사용자가 AI의 답변을 곧이곧대로 믿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허위 정보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AI 챗봇의 잘못

아침과 환각,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된 정보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는가 하면, 의료 상담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문제는 AI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 심각성을 아직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이미 다수의 사용자가 AI의 아침과 환각을 직접 경험하며, AI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조사에서도 응답자 상당수가 ‘AI가 허위 정보를 사실처럼 제시한다’고 답해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현실은 OpenAI의 GPT-5 발표에서도 역설적으로 확인된다. OpenAI는 GPT-5가 환각을 45% 줄이고, 아침 문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AI의 아침이나 환상이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작동 원리에 내재된 한계였음을 방증한다. ‘완벽한 해결’이 아닌 ‘문제 감소’를 내세운다는 점은, AI가 결코 절대적 진실을 보장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기술 진보만으로는 이 균열을 메우기 어렵다. 이 문제의 해결은 AI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의 각성에 달려 있다. AI가 건네는 말을 절대적 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달콤한 탓에 빠져들 수 있다. AI 답변은 참고 자료일 뿐, 정답이 아니다. 우리는 ‘이 정보가 사실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다른 출처와 교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 작은 의식이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된다.

또한, AI가 던지는 달콤한 칭찬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AI의 아침은 개인의 자만과 편향을 확대 재생산해 사회적 합리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지난 선거 때 극심한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확증 편향의 문제가 AI를 통해 더욱 증폭될 수 있는 것이다. AI가 특정 집단이 원하는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들려주며 편 가르기를 부추긴다면, 사회적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더 큰 문제는 확증 편향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때 발생한다. AI를 이용해 특정 인물이나 회사의 평판을 관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면 그 파괴력은 예측 불가능하다. AI가 객관적 진실의 거울이 아닌, 특정 의도를 가진 선전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AI는 어느덧 사회적 인격체에 가까운 위상을 갖기 시작했다. AI가 문명의 이기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면 그 잠재적 위험은 더욱 커진다. AI의 아침과 환각은 단순한 오류나 기술적 결함이 아니다. 이는 인간이 오래도록 씨워온 아침과 환상의 새로운 모습이다.

기술의 진보는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비판적 거리를 두는 태도야말로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시민의식이다. AI가 내놓는 대담에 무비판적으로 속아 넘어갈지, 아니면 더 깊이 사고할지 는 기술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린 문제다.

자치칼럼



서 순 복
품자주자시민들 대표회장
조선대 법학과 교수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이 국민주권정부 요직에 갔다. 작년에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 하던 중에 필자가 주민자치 시민운동을 한다 했더니, 충남 홍성의 홍동 마을을 강력 추천해줬다. 필자는 문화정책이 전공이었지만, 어떻게 인연이 돼 전공도 아닌 주민자치 분야에 뛰어들지 5년이 넘어가면서 많이 배우고 있다. 얼마 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설문조사를 해보니, 1순위가 주민자치 교육의 필요성을 꼽았다. 지난 정부 들어서 주민자치박람회도 폐지된 상태에서, 강의실 교육보다 주민자치 우수 선진 사례 지역을 답사하는 것은 살아있는 현장 교육이 될 것 같다. 벤치마킹은 단순 모방이 아니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창조적 변용이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지 않은가? 보는 것이 생생하게 남는다. 사전에 우리 지역의 여건과 환경을 분석하고, 우리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해 궁금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질문 리스트도 미리 만들어 보고,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다면 교육효과는 배가 될 듯하다. 필자는 부끄럽게도 아직 홍동마을에 가보지 못했다. 다만 논문과 인터넷 자료검색을 해봤고, 주

홍동 마을에 가고 싶다

민자치회 회장과 인터뷰를 했다. 홍동에 가고 싶은 마음에 조사를 좀 했다.

홍동 마을은 자치 문화가 오래전부터 이뤄졌다. 80년대에 관련 책이 나왔다. 홍동면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가 있고 특히 풀무학교(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가 있다. 인구는 3천 여 명이다. 특히 협동조합이 50여 개나 있다. 혼자보다 협력을 통해서 한다. 조합원은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의료 복지 분야는 70~80여 명으로 멀리서도 온다 한다. 서로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있다. 협동조합과 주민자치회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활동한다. 다양한 형태로 중복되고 있다. 특히 마을거리축제에서는 함께 활동한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조합 몇 개에 가입돼 있다. 햇살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을 교육 분과장이 맡고 있고, 홍성 의료사회 지역협동조합은 주민자치회 복지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다.

홍동 마을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돌아볼 곳들이 정말 많은 곳이라 한다. 홍동 마을 투어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 전국에서 견학을 온단다. 홍동 마을은 2024년에 마을길 걷기 사업이 우수사례로 충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은 35명이다. 중간에 사정있는 분들이 있어 추가 모집도 했다. 이장과 부녀회장들이 들어오신다. 마을 주민들과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는 자치 프로그램으로, 먼 단위에서 시행되는 13개의 음악 무용 등의 프로그램과 4개의 스포츠 프로그램이 있다.

홍동면은 33개의 마을로 마을 걷기 사업은 마을별로 찾아다니면서 마을 골목길을 걷는

다. ‘마을 같이 걷자’라는 프로그램은 노인회장이 부녀회장, 이장과 함께 걸으면서 설명도 듣고 같이 걷는 것이다. 마을 이장이 브리핑을 하기도 한다. 마을의 역사와 문화도 배우고 주민 자치회 홍보도 한다. 평소 멀리 여행은 하지만 마을 옆집은 잘 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주민자치회 회장이 홍동 마을에서 20여 년 이상 살면서 평생 살아온 마을이지만 안 가본 곳도 많다고 한다. 이곳은 상암지역도 아니고 공장도 없지만, 평소 마을 안을 잘 찾아보지 못했는데, 마을길 걷기 사업을 통해 마을 속살을 들여다 보게 된다. 문화분과 위원들이 제안을 해서 시행하고 있다 한다.

충남 홍성의 홍동 마을은 친환경 유기농 지역이라는 자부심이 강하다. 지역의 환경보존에 개인과 공동의 노력이 함께 한다. 주민조직과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는 풀무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해, 주민들을 교육해 유기농 농업에 관심이 형성되면서 친환경 마을이 되었다 한다. 2018년에는 홍동 주민원탁회의(타운홀미팅)는 ‘우리가 살고 싶은 홍동은?’ 주제로 원탁회의를 한 결과가 면정에 반영되는 등 주민자치 활동에 주민참여가 잘 이뤄진 경험이 있다. 지역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소문나 있다. 마을 화해, 도서관과 연구소, 농산물 가공공장, 어린이집, 로컬푸드, 책방 등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이 많다. 동네 사람들이 출자해서 세운 주점인 마실방 ‘뽕’은 마을 사람들이 즐겁게 술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운다고 한다. 홍동 마을에 가보고 싶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社說

이번엔 순천에서 중대재해...안전불감증 만연한 사회

순천 레미콘 공장에서 밀폐된 혼합제 탱크 내부에 들어간 작업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직원 1명이 쓰러지자 그를 구하려고 2명이 뒤따라 들어갔다가 함께 참변을 당했다. 산업현장에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고도 안전수칙 위반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작업 공간 내부의 산소 농도나 유해가스 농도 등을 확인하도록 한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적정 공기수준 유지를 위해 환기해야 하고, 불가능하면 산소마스크 등 장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당시에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북 청도군에서는 경부선 안전 점검을 위해 철로 주변을 이동하던 근로자 7명이 열차에 치어 숨지거나 다쳤다. 당국은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열차 접근 경보 장치가 정상 작동했는지 분석 중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외주 용역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고, 재발을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어나선 안될 불행한 사고였다. 중대재해로

보여진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살기 위해 직장으로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의 연속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기업들에 안전에 최우선해 달라며 이를 어길 경우 퇴출 경고까지 하는 상황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후진적인 행태를 더 목과해진 안 된다.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사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말 한마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아무도 사소한 작업이라도 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순간의 방심이 화를 키운다고 했다. 모든 현장에서 사전에 안전 규정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원칙이다. 사고 예방·주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상대적으로 우수 사례에 대해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으로 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위험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면서 제 값을 키워가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

폭염·폭우 ‘복합재난’ 취약계층 보호 노력 필수적

기록적인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번갈아 역대급 피해를 낳으며 취약계층 보호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광주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올 여름 폭우·폭염 사례를 비롯해 상습 침수, 노후 인프라, 고령자 밀집지역 등 위험 요인이 중첩된 환경을 ‘도시형 복합재난’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동일 지역·계층에서 반복 지속하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기존 법·제도나 매뉴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특히 기후위기, 도시화,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취약자 관리 체계와 회복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전략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연일 30도 이상의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극지성 장대비가 잇따랐다. 이례적으로 기상 특보가 계속 발효되고 있다. 자연재난 예측이 더 쉽지 않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더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화로 인해 건강 및 체력이 저하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고령자들은

가장 큰 위협에 놓였다. 저소득층, 장애인까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유독 가혹한 법이다. 자연은 공평하지만 재해는 불평등하다. 취약계층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수립되고 온실가스 감축 등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문자, 대피 안내에 접근하지 못하는 약자들이 많다. 침수·고립·정전·정보 등 다양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복합재난은 동시다발적·연쇄적 영향이 교차하는 만큼 새로운 대응체계와 시책 설계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불평등을 해결하고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광주연구원의 제언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킬 방법을 숙고해야 한다. 전방위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아침묵어는 詩

백지

윤영훈



백지는 태초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
많은 말보다 침묵의 소중함을
초롱초롱한 아기의 눈빛으로
지그시 전하고 있다

백지는 순결한 처녀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가치 있음을
수줍게 기다리는 모습이 더 고음을
마알간 얼굴로 보여주고 있다.

(시집 ‘별을 잃어버린 그대에게’, 세인출판, 2016)

[시의 논]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백지. 그러나 그 백지를 심미안으로 투시하면 거기엔 의식의 세계가 묻어있다. 의식의 세계는 동경의 세계요, 이상의 세계다. 시니피에로서의 백지, 거기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미 변수가 숨어있다. 말하지 않음을 말함으로, 공허함을 넘닉한 채움으로, 정적인 공간을 사투동적인 공간으로 변화, 혹은 승화시키는 백지의 마법에는 여백의 그윽한 미가 자리 잡고 있다. 여백의 미는 또 다른 백지의 시학이다. 하이데커가 존재론적 물음을 근본 양식으로 해 세계를 해석해낸 것처럼 다가머는 인문학적 해석의 견지에서 확장된 사물의 해석을 내놓는다. 백지는 단순히 미적 대상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인식의 매개물로 떠오른다. 백지의 비움과 자유로움은 인식의 놀이터이다. 놀이터로 끌어들이는 백지의 힘, 그것은 예술미학의 경험에 참여케 함으로써 특별한 진리를 맛보게 하는 추동체 사명을 담당한다. ‘백지는 태초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 ‘백지는 순결한 처녀이다’ 이 철학적 명제는 말이 필요 없다. 침묵을 통해 수없는 말을 되뇌이게 만든다. 침묵을 눈빛으로 읽으며, 시인의 자각을 응시하며, 조용한 언어의 물결이 호응하며, 사색의 담금질을 추출시키는 것을...

〈윤상현·시인〉

독자투고

교통사고는 매년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며 그 중에서도 5대 반칙운전(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급차차 법규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한순간의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많은 교통량으로 반칙운전이 잦은 핵심교차로 7개소에 유턴구역선의 길이를 조정해 순차적인 유턴을 유도하고 중앙

5대 반칙운전 근절, 모든 운전자의 협력이 필요

선에 시선유도봉과 간이중앙분리대 등 물리적 시설 설치 추진을 통해 새치기 유턴을 예방하고, 교차로에 정차금지대대를 설치해 꼬리물기를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 상 유·출입 지점에 서 무리한 끼어들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면색갈유도선 신설 및 기존 길이 연장 등으로 전로변경을 사전에 유도하고 변경 제한선 구간은 끼어들기 금지 문구를 노면에 표시하여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내 핵심 교차로 4개소에

교통질서 확립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교육과 SNS, 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대 반칙운전의 근절은 경찰의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에,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과 시민이 협력해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사회가 될 때, 도로의 사고는 줄어들고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배지환·여수경찰서 생봉지구대〉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건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